코로나 여파에 8월 취업자 60만명 감소…일자리 168만개 증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월보다 6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168만개 사라졌다.

20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표한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총 2692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월(2752만명)보다 60만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다.

김 이사장은 "통계청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때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전월 대비'보다 '전년 동월 대비' 지표를 사용한다"며 "이에 대다수 언론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고용지표는 계절 요인 외에도 경기변동, 불규칙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일 때 전년 동월보다 전월 또는 2월 대비가 적합하다"며 재분석

노동사회硏, '코로나 위기와 8월 고용동향' 보고서
코로나 대유행 직전 2월 2752만명→8월 2692만명
취업자 감소폭, 글로벌 금융위기 25만명 크게 넘어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9월 취업자 큰 폭 감소할듯"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분석은 계절적 요인이 제거된 통계청의 별도 '계절조정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월별 계절조정 취업자는 2월 2752만명 → 3월 2684만명 → 4월 2650만명 → 5월 2666만명 → 6월 2674만명 → 7월 2681만명 → 8월 2692만명 등이었다.

전월 대비로 보면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명 감소했고, 4월 취업자는 전월보다 34만명 감소했다. 다만 5월에는 전월대비 15만명, 6월 8만명, 7월 7만명, 8월은 11만명 증가했다.

김 이사장은 "취업자 수가 3~4월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 이후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전인 2월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했다.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명 줄었고, 4월에는 102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에도 5월 취업자는 2월보다 87만명 줄었고 6월 79만명, 7월 71만명, 8월 60만명 감소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정책 효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 6개월간 취업자 감소폭(60만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간 취업자 감소폭(25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1월 취업자는 2379만명이었으나 6개월 뒤인 2009년 5월에는 2354만명이었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첫 6개월간 취업자 감소폭(141만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 6개월간 실업자는 4만명 감소했다. 지난 2월 93만명이었으나 8월 89만명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취업자는 60만명 감소했는데 실업자는 4만명 감소에 그친 것은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비경활)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실업자 추이보다는 실업자와 비경활 인구를 합친 무직자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무직자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무직자는 1718만명이었으나 8월에는 1789만명으로, 6개월간 72만명 증가했다. 2월 대비 8월 일시휴직자는 23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감소와 일시휴직 증가로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주당 총 노동시간(계절조정 취업자수×노동시간)은 지난 2월 10억9800만 시간에서 8월 10억3100만 시간으로 6700만 시간 감소했다.

이를 주 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8월에만 16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좀처럼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취업자수 감소는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도 고비다.

김 이사장은 "8월15일 광화문 집회 여파에도 취업자 회복세가 8월까지 계속된 것은 통계청의 조사가 8월15일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9월 조사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홈플러스 "시그니처 간편식으로 명절 밥상도 간편하게" 모델들이 20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시그니처' 간편식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 추석 귀성 대신 집에 머무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들로 '시그니처 간편식'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계빚 올들어 벌써 60조 폭증…내년 1700조 넘나

신용대출 급증에 1~8월 은행 가계대출 60.1조↑

우리나라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0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초저금리 속 집값·증시 상승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일어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60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월 증가 규모(34조6000억원)보다 두 배 가량 급증했다. 내 집 마련, 주식 투자, 전세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진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증가세를 떠받쳤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만 2조원 넘게 급증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더한 우리나라 전체 가계신용은 올해 연말 1670조원, 내년에는 1700조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2분기말 기준 가계빚은 1637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경제 회복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직이나 자산가격 급락 등으로 가계빚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되면 금융권과 신용시장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회의 의사록에서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 고공행진세가 이어지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택대출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은행에는 신용대출 관리 계획을 주문하는 등 간접적인 개입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규제 전반의 이행상황을 점검 중이고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8월 수출입 물동량 19.7%↓…"세계적 수요 감소"

컨테이너 물동량(TEU)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

지난달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7%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734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4343만t) 대비 18.2%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유류 물동량이 줄어들고, 발전용 연료(유연탄 등)의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억2560만t) 대비 19.7% 줄어든 총 1억81만t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및 광석, 시멘트 등의 물동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3만t) 대비 7.3% 감소한 총 1653만t을 처리했다.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무역량 감소로 항만별 처리화물 중량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중량(내품)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물동량이 크게(-24.0%) 감소했다. 또 ▲광양항(-18.4%) ▲울산항(-14.4%) ▲인천항(-6.3%) 물동량도 줄었다.

품목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원유·석유정제품·석유가스 등)와 광석, 유연탄, 철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6%, 13.2%, 15.0%, 29.7% 감소했다.

또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42만TEU) 대비 3.9% 감소한 232만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137만TEU) 대비 4.3% 감소한 131만TEU를 기록했다. 환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104만TEU) 대비 3.2% 감소한 100만TEU로 집계됐다.

전국 항만의 지난달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7705만t으로, 전년 동월(9105t) 대비 15.4% 감소했다.

광양항과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대부분 항만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유류, 광석, 유연탄, 자동차가 각각 18.5%, 12.8%, 15.0%, 18.3% 감소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회복 동향이 파악되는 만큼,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 확대하고 항만별로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물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8월 주택매매 거래량 40% 급감…'거래절벽' 본격화

서울 거래량 1만4459건…전월대비 45.8% 감소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급감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대비 39.7% 감소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8.2% 증가한 것이다.

1~8월 누계 거래량은 84만756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9.2% 증가했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을 옥죈 영향으로 현금부자 외엔 주택을 사기 어려워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월 주택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4만3107건으로 전달 대비 43.1 감소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선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래량은 1만4459건으로 전달에 비해 45.8% 줄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도 강북 거래량이 전달 대비 47.6% 줄었고, 강남 거래량은 43.9% 감소했다.

지방은 4만2165건으로 전달 대비 35.8% 줄었다. 부산이 6281건으로 전달 대비 절반(50.2%) 가량 감소했다.

전국 8월 거래량을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 아파트는 5만9429건으로 전달보다 42.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2만5843건으로 전달보다 33.4% 감소했다.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355건으로 전달 대비 4.3% 감소했다.

수도권은 11만8801건으로 전달 대비 5.4% 줄었고, 지방은 5만6554건으로 전달 대비 1.9% 감소했다.

전세(10만4563건)는 전달보다 7.0% 감소했고, 월세(7만791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호 기자